

코스피	2566.36	코스닥	734.26
(-7.28)		(+11.46)	
금리	2.596	환율	1453.00
(+0.026)		(-0.80)	



m-커버스토리

철회? 유예? 오락가락 美관세정책 자동차·철강 등 韓 수출 '시계제로'

'갈지자' 트럼프 행보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 철회 또는 유예 재차 반복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
경제 전망치 수정 불가피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대미 수출 기준 8위 흑자국인 한국에 관세 압박은 예상돼 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효한 데 이어 내달 2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2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며 "만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자동차는 우리 수출액 기준 1,2위 효자품목이고, 철강의 경우 17% 수준을 미국에 수출한다.

다만, 트럼프 무역통상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은 커진 양상이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 폭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앞서 예고했던 25%보다 2배 높은 50% 관세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다고 했다가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 계획을 철회하자 5시간여 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앞서 취임 직후에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

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발효 하루 전 한 달간 유예했고, 3월에도 관세 부과를 재차 유예하기도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이달 4일 발효 직후 전격 1개월 먼저 결정을 내렸다. 내달 2일 예고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나 품목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무역통상 체제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트럼프발 올해 경제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인 작년 11월 25일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트럼프 관세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측했던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정 전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여·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십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尹 탄핵심판 '결전의 한주' 여야 장외투쟁 등 전운고조

이번주 중후반 선고 예측
대선 판도 가를 분수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탄핵 찬반 투쟁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결정되는 만큼,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시선은 현재에 쏠릴 예정이다.

경찰 비공산 추산 기준, 지난 15일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자유통일당이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3만5000여 명이 운집해 각각 세를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행진에 나서며 여론전을 벌였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

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근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옛새끼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도 장외투쟁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장외투쟁 참여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현재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앞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결제대금 지원"

MBK파트너스 회장 입장문 희생절차 사회적책임 다할 것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의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희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홈플러스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 거래처에 즉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한 뒤 지원 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예상되는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의 지급 불능 사태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홈플러스가 법원의 보호 아래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희생절차가 홈플러스 정상화의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에는 약 1만9000명의 임직원과 약 6000여 개의 상거래처가 연결돼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이번 희생절차가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채권 변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희생절차를 통해 홈플러스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신속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최근 실적 부진과 재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의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소상공인 거래처 보호를 위해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관측에 與장릉들 행보 재개
-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 ▲'4·2 재보궐 선거' 앞두고 투·개표소 화재안전 조사
- ▲北 "주일미군기지 F-35B 추가 배치...美 발악적 군사모험"

- ▲北 김정은,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시찰
- ▲北 최선희, 리 외무차관 만나...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